



3면

“어려운 시기, 억강부약해야”

전주매일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음 1월 6일) 제319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도-도내 정치권-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 3각 공조

김관영 도지사-민주 안호영 의원-유희태 완주군수, 국회 찾아 전북 현안 반영건의 “수소경제 기반 잘 갖춘 전북에 산단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균형발전 동시 해결 가능”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 완주군이 올해 정부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전북의 현안인 수소특화 국가산단 단지 조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3각 공조에 나섰다.

김관영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유희태 완주군수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과 같은 당 원내대표인 박흥근 의원, 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을 릴레이 방문하고 전북의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정부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국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는 이달 말경에 평가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의 종합평가를 거쳐 국토부가 다음 달 중순경에 선정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와 안 의원, 유 군수는 이날 “전북은 세계 최초의 수소트러스트 상용화와 국내 유일의 수소버스 생산 지역”이라며 “탄소배출소재를 활용한 대용량 수소 저장용기 산업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수소경제의 미래가 가장 밝은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 등은 “수소경제 기반이 잘 갖춰진 전북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해 국내 수소 전문기업을 담아낼 경우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정 제1 과제인 지역 균형발전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 “가뜩이나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전북에 새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수소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차 공장을 비롯한 수소기업이 집약되어 있고, KIST 전북분원과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등 여러 연구·지원기관도 운집해 있다”며 “정부도 이런 경쟁력을 인정해 ‘균형발전 전북공약’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명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과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지정되어 전주시의 탄소산업과 연계할 경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후 전북의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 불균형 성장을 바로 잡기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특히 “완주군은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대도와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불철주야 뛰고 있다”며 “작년 말에 ‘수소융합 검사지원센터’를 착공하고, ‘연료전지 원 스톱 인증체계’도 구축하는 등 수소경제 핵심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는 만큼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반드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하게 건의했다.

유 군수는 “수소특화 국가산단은 2100년 전 한반도 철기문화의 여명을 열었던 완주군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현대차 공장이 인접한 봉동읍 일원에 165만㎡ 규모의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국내 수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과 전북이 자랑스러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의 현안인 수소특화 국가산단은 완주군 봉동읍 일원에 국비 등 6,270억원의 예산을 들여 165만㎡(60만평)를 조성, 수소 전문기업을 집적화하고 친환경 수소산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관영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유희태 완주군수는 26일 더불어민주당 박흥근 원내대표를 찾아 전북 현안인 수소특화 국가산단 반영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관영 도지사, 박흥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희태 완주군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 취약계층 대상 긴급 난방비 지원

난방비 급등 따라... 예비비 87억원 추가 투입 총 270억원 한부모 가정 등 도내 4만3617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전북도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비 87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총 270억원을 지원한다.

26일 전북도는 최근 기록적인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3만3,935가구에 한부모 가정 9,682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총 87억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러-우시태 등이 촉발한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여파로 난방비 등 에너지 가격은 급등하고 있고,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긴급하게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도는 정부의 지원기준에 미달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되는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에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한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여가생활을 즐기시는 경로시설 6,876개소에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183억을 시군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난방비 폭등과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전북도가 먼저 나서겠다.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도의회의 의장은 “연일 계속되는 혹한속에서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을 돕기 위해 긴급예산을 지원키로 했다”며 “도의회에서도 도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이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023. 01. 01. 처음 시행하는

완주 고향사랑 기부제

“완주군에 살고 있지 않아도, 완주를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모든 분들께 완주군은 고향입니다. 기부를 통해 고향에 큰 힘을 주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완주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2023년 기부금 사업은
기후위기의 대안인 로컬푸드를 활용한 먹거리 복지와 따뜻한 에너지 복지 지원 등에 쓰입니다. 농업과 환경을 살리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 수혜 대상의 어려움을 살피며 세심하게 추진하고, 그 내용과 성과도 책임지고 투명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완주에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고향사랑의 기적’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지역 주민복지 증진 등에 활용하는 제도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방법
온라인 : 고향사랑e음(http://www.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

기부한도
· 개인별 연간 500만원

2023년 완주군 기금활용 사업
로컬푸드 먹거리 복지 지원(취약계층 도시락, 꾸러미 등)
에너지 복지 지원(취약계층 난방효율 집수리 등)
그 밖에 주민 복지증진 사업 추진

기부하신 분께는 세액공제와 담례품을 드립니다.

세액공제
기부액 10만원까지 소득세에서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담례품
· 기부액의 30% 내로 제공(농·축산물, 가공식품 등)
※ 완주군민의 이야기와 사회적가치가 담긴 제품들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내드립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생산한 상품들로 담례품 한 개로도 여러 농업인, 공동체 등이 함께 성장합니다.

완주군 고향사랑팀 ☎ 063-290-2391~2

지난해 전북 농수산물식품 수출 사상 최대 실적

5억791만 달러 전년보다 15.9% ↑... 코로나19 속 지속 성장도, 올해 글로벌 마케팅 유통망 확대 등 3개 분야에 36억 투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해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이 5억791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억3,832만 달러 대비 15.9% 증가한 금액으로 2016년부터 7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의 수출성적을 이룬 것이다.

전북 농수산물식품 수출은 2016년 2억 달러 달성 후 2년 만인 2018년 3억 달러에 진입을 했고, 2020년 4억 달러의 벽을 넘어선 이후 다시 2년 만인 2022년 5억 달러를 달성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별로는 일본(4,200만 달러 ↑), 베트남(1,700만 달러 ↑)의 수출액이 1년전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품목별로는 가공농식품(8,400만 달러), 축산물(1,300만 달러)의 수출액이 증가했다.

전북도는 2023년 수출액 목표를 전년 대비 18% 증가한 6억 달러로 설정하고 다양한 농수산물식품 수출 정책을 통해 농가 및 농식품 기업 소득향상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글로벌 마케팅 유통망 확대, △수출경쟁력 강화 및 품목 육성, △수출 관계기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 3개 분야에 전년 대비 8억원이 증가한 총 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미국, 일본 등 주력시장의 집중 공략 및 수출 다변화를 위한 베트남, 태국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해 전북 홍보관을 운영하고, 미국·일본 등 해외 바이어 및 유통망과 연계한 홍보·관측행사 개최 등 해외 마케팅 활동 전개를 위해 4개 사업에 1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미국·일본지역 해외 거점유통망을 활용한 농식품 수출지원을 추진할 계획이고, 전북 최대 농식품 수출지역인 중화권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제품 디자인 개발 등 수출기반 구축 지원, 유통망 확대 및 시장개척 활동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농식품 수출 다변화를 위해 전북 베트남·인도 통상거점센터를 활용해 수출 수출국으로 부상하는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고, 러시아 등 신시장

에 대한 개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 소득과 직접 연계되는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닭가슴살, 김치 등 신규 유망 수출농식품 발굴과 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을 통한 품목별 규모화, 광역 연합 공동마케팅 추진 등 2개 사업에 2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무역업체, 수출기업 및 행정인 연계되는 농식품 수출마케팅 협의회를 운영해 수입국의 조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기업·행정·수출 관계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사업 및 수출정보 공유 등 농식품 분야의 수출 지원체계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지난해 전북 농식품 수출액이 5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은 전북 농식품산업의 미래가 긍정적이라는 신호”라며, “올해도 더욱 도전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